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지상 설교

하나님께만 영광

(로마서 11장 33 - 36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는 지난 일년간 참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누구를 위해 하는 감사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36절).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of him), 주로 말미암고(through him), 주에게로 돌아감이라(to him)이라고 하면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말을 바꾸어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만은 영어로 alone, 라틴어로는 ‘솔루스’라고 합니다.

“졸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졸라 휘테(오직 믿음)”, “졸라 그라치아(오직 은혜)”, 이 세 단어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사랑한 말입니다. 권위는 오직 성경뿐이며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옵니다.

“졸라 대오 글로리아(영광은 하나님께만)” 우리 교회가 설립 12주년을 맞으며 참으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극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36절).

누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왔고, 사람으로 말미암으며, 사람에게 돌아감으로 영광을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며 신지는 마땅히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2. 기독교인의 세계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36절).

모든 것(all things), 곧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나 만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여길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고전 4:7)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건강, 지식, 지혜, 가족, 물질 등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은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은총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시험과 유혹의 바람이 수없이 우리를 스쳐갑니다. 전쟁의 위협과 안타까운 일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귀한 열매, 귀한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년도 찬양대원 · 교구일꾼 임명

찬양대원 임명 - 오늘 예배 시간에 교구일꾼 임명 - 3부 예배 후 교구총회 시간에

교회는 오늘 2004년도 찬양대원 및 교구일꾼 임명식을 갖는다. 찬양대원들은 오늘 예배시간 중에 임명을 받게 되며 교구일꾼들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갖는 교구 총회 시간 중에 임명을 받게 된다.

오늘 임명받는 대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며 더욱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본인이 속한 교구 및 다락방에서 간사와 다락방장으로 봉사하게 될 교구일꾼들은 다락방 식구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기 기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한편 오늘 임명 받게 되는 찬양대원들은 1부 예배 - 가브리엘 찬양대, 2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3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와 아멘 관현악단, 펠그림 중창단, 찬양예배 - 베들레헴 찬양대와 갈렙찬양대, 글로리아 그리고 오는 12월10일(수) 수요일 1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수요일 2부 예배 - 시온 찬양대가 각각 임명 받게 된다. 은빛 찬양대는 지난 3일(수) 수요일 1부 예배 시간 중에 이미 임명을 받았다. 찬양대원 명단은 주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으니 참고바라며 교구일꾼 명단은 교구 총회 시간에 배포될 예정이다.

2004 순결 서약식 접수 시작

2004년 1월 4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실시

우리교회는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오는 2004년 첫 주일이 되는 1월 4일 찬양예배 시간에 순결 서약식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아직 순결 서약식을 하지 않은 13세 이상 미혼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어있다. 접수

는 12월28일(주)까지 한다. 순결서약식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학교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0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으며 순결 서약을 거행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 반지'가 주어진다.

11월에 등록된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강덕상 강승용 강은경 강해영 강현주 과나미 과재운 과현석 권도현 권이운 권유림 김경숙 김경혜 김도담 김도연 김민섭 김민진 김병근 김병현 김성은 김수경 김수환 김순덕 김연신 김영례 김영순 김용석 김윤지 김윤태 김은경 김인숙 김자경 김재운 김정은 김정태 김정현 김정환 김종대 김종민 김중희 김지운 김지혜 김준호 김현승 김현재 김현중 김현진 김혜정 김효정 남기원 노주희 노하진 류라경 박고운 박광현 박상철 박선규 박선희 박선희 박성국 박성금 박세규 박순임 박승민 박정범 박종일 박종호 박해남 박혜민 배미선 배수진 배옥선 백정숙 변윤경 서금희 소만영 소유경 손문자 송지훈 신나운 신미선 신선호 신수경 신중숙 신현업 심복순 심인섭 심창섭 안연희 엄태조 엄태준 엄효기 오화자 원수연 원정호 원혜정 윤강노 윤기봉 윤영운 윤정식 은세울 이경아 이규영 이기백 이다은 이동수 이동훈 이병렬 이상미 이상욱 이상태 이선미 이선진 이승진 이승환 이시용 이애나 이예린 이예린 이용숙 이용안 이유빈 이은미 이정아 이정희 이종현 이종훈 이지은 이지혜 이창영 이치선 이치영 이태승 이희국 임광경 임대섭 임민우 임민주 임준서 임춘숙 임태우 장경순 장경아 장민경 전수정 전유태 전인숙 정구영 정민아 정성환 정성범 정여진 정은혜 정인혜 정중무 정주원 정진영 정현주 정혜경 조석운 조운주 조임제 조한철 전인선 진운선 최금봉 최석준 최은정 최환숙 최화옥 한대석 한상덕 한소영 현승용 현영철 허우균 현다영 현성철 홍성원 황경신 황연이
Joseph Schley · Matthew Schley · 이상 183명

각 부서 회의록 및 일지 제출 요망

교회학교, 남-여 전도회, 찬양대를 비롯한 기타 부서의 회의록 및 일지를 잘 정리하여 12월 31일(수)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을 요망한다. 제출할 회의록 및 일지는 존안하였다가 앞으로 우리교회 20년사를 기록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제3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8주간에 걸친 찬양대 양성반 과정을 마친 제3기 수료생들의 수료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 중에 있다. 수료생들은 각 찬양대로 배치되어 봉사하게 된다.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규순 김미성 김숙자 김영희 안경옥 안준홍 오정수 오주명 옥문수 원용범 유명종 유승현 윤석배 이창희 장희옥 정정숙 최호영 김정란 박상훈 홍성주 우고는 이기일 박제원 이상 23명

송구영신 예배 시 각 부서별 촛극대회 실시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12월31일 저녁은 축제의 분위기가 될 것 같다.

31일 밤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각 부서 - 남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등 어느 기관, 부서든지 '촛극'을 준비하여 각 팀별로 5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 안에 발표를 하고 또 시상을 하게 된다. 참석할 팀은 교회 사무국으로 12월 28일(주일)까지 신청바란다.

† 연말연시 교회 일정표 †

- 2일(화): 예배위 총회
- 3일(수): 권사회 총회, 은빛찬양대원 임명식
- 4일(목): 갈렙찬양대 총회
- 5일(금): 스테반회 총회
- 6일(토): 의료선교회
- 7일(주일): 찬양대원 임명식(I, II, III부 베들레헴), 찬양대원 양성반 수료식, 교구총회 새가족 환영회
- 7일(주일), 14일(주일), 15일(월): 학습세례식 교육
- 9일(화): 요리문답반 총회
- 10일(수): 호산나, 시온찬양대 임명식
- 11일(목): 유아부 총회
- 12일(금): 멀티미디어 봉사단 총회
- 13일(토): 청년부 교사 임원 수련회
- 14일(주일): 교사 임명식, 전도학교(7기) 수료식, 예배위(현금, 안내, 성찬부원) 임명, 전도위(70인전도대, 간사) 임명, 관리위(차량부, 식당봉사자) 임명, 멀티미디어팀, 순례자, 상담부, 비전2020본부팀 임명
- 15일(월): 전국 농아인 선교회 임원회
- 16일(화): 메시아 연합 합창
- 17일(수): 학습 · 세례식
- 18일(목): 중등부 교사총회, 미군가정 초청
- 19일(금): 유치부 총회
- 20일(토): 70인 전도대 총회, 상담부 총회
- 21일(주일): 대학부교사, 임원수련회
- 22일(월): 연말당회
- 24일(수): 수요일예배(어린이포함) 시 성탄절야 예배 (I부예배는 없음), 핸드벨팀 EBS-TV(ch13) 23:10-24:00출연
- 25일(목) 새벽예배, 낮예배(11시): 성탄감사예배 (오후) 교역자 수련회 - 26일까지
- 28일(주일): 교회학교 졸업식, 장로 · 권사 은퇴식, 직원은퇴식, 장로안식년, 전도시상, 주간성경공부시상 특별 제직회(예결산 심의)
- 31일(수): 순결서약식 교육, 송구영신예배 (수요일, II부 예배 없음)
- 1월 4일(주일): 성찬식, 신년감사예배, 순결서약식, 공동의회
- 5일(월)~10일(토): 청지기 수련회
- 9일(금): 신년 다락방 모임 시작
- 12일(월) 강남노회 신년 제직 수련회
- 22일(목)~23일(금) 성경 통독 사경회
- 1월~2월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메시아 연주회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는 16일(화) 오후 7시 올림픽 홀에서 개최되는 제36회 메시아 대 연주회의 주관교회인 우리 사울교회는 이 연주회를 올해의 성탄축하음악예배로 대신하기로 하고 별도의 재정을 지원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배정받았습니다.

오늘 각 예배 후 현관에서 예배위원들을 통하여 성도 한 사람 당 한 장씩이 배부되고 이 입장권을 가지신 분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좌석권을 받아 지정된 좌석에 입장하게 됩니다. 좌석권 교환은 16일 오후 5시30분부터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사울교회에 배정된 좌석의 앞부분부터 배정되오니 되도록 서둘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홀의 위치는 입장권 뒷면을 참고하시고 전도의 목적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 입장권이 필요한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메시아 합동 연주위원회)



장로기정 탐방 - 홍정호장로 · 우선자권사기정

성경10독한 김정호 집사를 만나다

위에 것을 생각하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937년 평양 근교에서 태어난 홍정호 장로님은 구한말 사무엘 포켓(한국명: 마포삼열) 선교사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조부님 덕택에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에 가서 설교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농사일을 하였던 부친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일을 도맡아 하는 등 열심 있는 봉사를 하시는 모습에 영향을 받아, 홍 장로님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 대학생 시절엔 꾸준히 새벽기도를 다니며 청년부 회장을 맡는 등 열심을 다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친척의 소개로 만나게 된 우선자 권사님은 친정 외조부님이 목사님이셨고 아버지(우호의 전 송실대 교수)가 장로님이셔서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자랐다. 이 같은 든든한 신앙전통은 결혼 후 40년이 다 되도록 장로님 가정의 한결같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큰 아들 영록(목사)과 둘째 아들 영조(전도사)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해련과 해란은 반주자로 성가대원으로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지고 있는 가정이다.

그러나 장로님 부부에게도 몇가지 큰 신앙의 고비가 있었다. 둘째 아들인 영조가 중학생 때 뇌에 물이 차는 뇌수종 병에 걸려 뇌수술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장로님 가정은 온 가족이 매달려 일생일대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길고도 고통스런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죽을 뻔했던 아들 영조는 기도 6개월 만에 수술 없이 완치가 되는 기적을 맞보았다. 이 일을 계기로 큰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도 다시 살려주신 생명을 주께 바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로님은 이때 일을 회고하면서 "모태 신앙인 신자들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같은 체험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믿는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당시부터 장로님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생겼는데, 바로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이다. 가사 구절구절마다 꼭 당신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 같아 장로님은 틈나면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신다고 한다. 내년에는 목회자세미나 원감과 장학회를 맡으실 예정이고 권사님은 임마누엘 성가대를 섬기실 예정이다.

은퇴를 앞두고 장로님은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한다.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장로 안수를 받은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의 크나큰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치유의 기적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간절한 홍정호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정에 더 큰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한다.

김민철(편집부)



"26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경을 읽고나니 지나간 세월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장 한장 읽을 때마다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횡수가 늘어가면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더군요. 이제 정말 성

경말씀대로 살기 위해 남은 여생을 보낼 작정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성경을 10번이나 완독한 김정호 집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이렇게 소감을 털어놨다.

김정호 집사님이 성경 읽기를 결심하게 된 것은 다락방 모임(용인수지부부다락방)에 참석하면서 부터다. 평소에 잘 참석하지 않던 다락방 모임이었지만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 등 주위 분들의 끊임없는 권면으로 한 번 두 번 참석을 하게 됐다. 다락방 모임 순서에는 각자 한주간 읽었던 성경말씀 내용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김 집사님은 여러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기로 결심을 했다.

올해 3월초 창세기부터 시작한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밤12시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식사하는 일과 뉴스를 보는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성경 읽는 데에 투자했다. 하루 평균 읽은 양은 60장에서 70장, 3주가 되자 66권을 다 읽을 수 있었고 약 7개월만인 지난 10월 7일에 10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속독을 배우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었죠. 특히 구약의 다윗왕과 모세,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애 등 스토리가 있는 부분은 내용 자체가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시간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율법서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 그리고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을 담은 로마서 등 다소 어려운 대목도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10독이 그리 힘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부인 신경희 집사의 공이 컸다고 김 집사님은 말한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주신 큰 은혜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은 김 집사님은 주의 일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에 6월부터 차량부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또 교사양성반을 마치고 내년 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도 봉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편집부)



2003년 권사회장을 마치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영희 권사(전 권사회장)

권사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일년이 하루같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 보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것 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요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 해였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아시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매순간 순간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셔서 함께 봉사하는 권사님들과 웃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건강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권사회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건강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참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권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23,24학기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는 교역자님들에게 매주 월요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기 위하여 식단을 짜고 시장을 보며 많은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할 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매주마다 모여 봉사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권사님들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항상 그렇듯이 모든 일에 만족함보다 부족하고 아쉬움만 더한 것을 느낍니다.

일년 동안 권사회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기도로 봉사로 협력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 임원에게 듣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조정식 장로(스데반회 전임간사)

지난 이맘때 스데반회의 간사로 세우심을 통보받고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뜨거운 기도 가운데 스데반회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시급함을 알리고 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선한 사업을 펼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청지기 수련회에서 김치 신학세미나 지원 및 봉사료 23, 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봉사료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그리고 구제사업으로 선교의 사명으로 기억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주의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며 지나온 길을 적어보니 온통 아쉬움과 회개할 것뿐이며 나의 힘으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데 인간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스데반회는 당회의 뒤를 따르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주님 전의 두 기둥의 하나로 귀히 세움을 받은 부서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밤중에 순종하며 주의 선한 사업에 순종수범의 본을 세우며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아쉬움과 회개의 기도속에서 스데반회 간사를 마무리하며 내년도 스데반회는 솔로몬의 성전에 서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과 같이 항상 주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빛을 발하며 죽기까지 순종한 스데반 집사의 길을 특별히 따라 성도들의 귀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재현 (청년부 전임 외장)

많은 기대와 의욕으로 출발했던 지난 일년 동안 물질과 기도, 격려와 때로는 도움되는 조언의 말로 청년부를 사랑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새로운 것들 시도 하였기에 더 많은 부족함을 알게 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올 한해 동안도 청년부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태훈 목사님께서 준전임 교역자로 청년부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청년부에서 확인한 양적 부흥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청년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열 명이 넘는 청년 조장들이 늘 섬김의 자리에 있었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난 청년소모임들이 자발적인 청년들의 운영과 참여를 통해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태풍피해복구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를 통한 섬김의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청년부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주심에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실 일들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품어 봅니다.

2004년에는 우리 모임을 통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 우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 비전을 품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 지기를 기대합니다. 늘 든든한 기도와 사랑의 후원자로 청년들을 품어주시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더욱 풍성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2004년 놓여준 100교회결연현황

69	미림교회	안국강(전)	양준경, 이인숙
70	신전교회	김진모(목)	이관규, 이순영
71	영광창수교회	한진혁(목)	이애덕
72	원주농이민교회	김의동(목)	안인호, 이명신
73	가호동교회	김종선(목)	12-10다락방
74	고음교회	노태근(전)	정치는, 김영현
75	신촌교회A	권영관(목)	이승우, 서경숙 · 교역자회
76	금산영광교회		류기찬
77	내남제일교회	이호선(목)	임인숙, 장지현
78	임마누엘교회	양옥희(전)	신훈가정부
79	회계교회	백현중(목)	홍창배, 권희순
80	모래교회	황인숙(전)	이영기, 이영숙
81	남연교회	박영만(목)	한나여전도회
82	물한동교회	황상배(전)	한나여전도회
83	금산북부교회	김의석(목)	도르가여전도회
84	이인교회	정석관(목)	도르가여전도회
85	원당교회	심현주(목)	사랑의회
86	늘사랑성교회	김상기	교역자회
87	삼막제일교회	한광희(목)	에스더여전도회
88	시촌교회	손동안(목)	에스더여전도회
89	충성교회	차득애(목)	민순구 · 김사라

(다음 주 계속)

서울교회의 디아스포라(DIASPORA)부 탄생



탁경준 집사(3교구)

지옥 같은 고통에서 탈출하여 온 개성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주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탈북민을 위한 기도모임, 탈북민을 위한 예배, 탈북민을 상담하고 중국 러시아 등에 흩어져 사는 그들을 위한 선교활동과 탈북민 보호 프로그램을 갖추어 2004년부터 '디아스포라' 교육부가 신설됩니다.

특히 서울교회가 주도하여 2001년 5월에 '탈북자 난민 보호요청서'를 11,800,000만 명의 서명 날인된 원본을 UN본부에 제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교사로 안내자로 상담자로 동참해주시 성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먼저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유래를 보면 이스라엘(유대인)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유대인들 주거지 가나안 땅(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다른 나라로 '흩어진 유대 백성'을 의미하며 기원전 700년경 북쪽 10지파가 잇수르 지역으로 기원전 600년경 남 2지파(유다,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로 각기 흩어져 나갔으며 그들은 정착된 나라에 함께 모여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농공상의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백성 중에 '디아스포라'로 방랑하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흩어져 사는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는 손길이 우리 서울교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9일(화) 군 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모임을 소집한다. 11일(목) 서울여자대학교 이사회에 참여한다.
- 이사: 조철기 집사 김영란 집사 가정 서초동 삼풍@20-603
전화: 3482-6911
· 김규대 박미혜 집사 가정 방배동 1-60 그레이스빌 101호
· 김중윤 집사 이종돌 집사 가정 노원구 월계3동 삼호APT 3296-0688
- 금주의 식사: 김원중 집사 · 이갑연 집사(방사에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금 오후 7시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임명된 찬양대원 · 교구일꾼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사생들을 위하여
3. 연말에 있을 메시아 공연을 위하여
4.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